

2022년 북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북 조선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2년 전망]

| 2022년 1월 3일(월) 오후 3시~5시

| 온라인 유튜브 실시간 방송

□ 프로그램 □

15:00 인사말씀

- 최완규 상임공동대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조동호 원장(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15:10 토론회

- 사회: 최대석 명예교수(이화여대)
- 발표: 북한 조선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2년 전망
 1. 정치·군사 : 진희관 교수(인제대 통일학부)
 2. 경제·사회 : 양문수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3. 대외·대남 : 박종철 객원교수(대전대학교)
- 토론: 1. 김갑식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
 2. 박희진 전임연구원(동국대 북한학연구소)
 3. 김용호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 홍상영 사무총장(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한 조선로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2년 전망: 정치 · 군사

진희관 (인제대학교)

1. 배경

- 북한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최장 5일간 개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제8기 제4차회의 보도를 통해 2022년 신년사 발표를 대체한 것으로 평가됨
 - 2020년 신년사를 전년도인 2019년 12월 28~31일에 개최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보도로 대체한 것과 유사한 형태임
 - 2021년에도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고 친필서한(190자 분량)으로 대신한 바 있음
 - 김정은 총비서는 집권 첫 해인 2012년에는 김정일시대와 같이 1월 1일자 로동신문 등에 신년공동사설을 게재했으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은 1월 1일자 로동신문에 신년사를 발표하였음
 - 향후에도 12월말에 전원회의를 개최할 경우 종합적인 보도로 신년사를 대체하고, 아닐 경우는 친필서한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
- 2019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제7기 제5차회의 보도와 같이 신년사를 대체하고, 전원회의 결정서의 내용들이 향후 북한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게 할 것으로 예상
 - 금번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는 매일 논의된 대부분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분과회의 개최 사실과 종합 보도만을 공개하여 구체적 내용을 전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셋째 의정(의제)인 농촌문제에 대한 당면과업에 대한 집중적인 강조가 있었음

2.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 전원회의 개최 특징

-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았으며, 2013년 3월 전원회의가 유일하였고, 2016년 5월 7차 당대회 개최 이후 여러 차례 개최됨
 - 2016년 2월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된 적이 있으나, 당 전원회의는 아니며, 7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성격

의 회의임

- 7차 당대회 이후 약 5년 동안 6차례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음. 1차 전원회의는 조직 인선을 위해 당대회 기간 마지막 날 경에 개최됨

○ 2021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 이후 1년 동안 전원회의가 4차례 개최된 것은 특징적임

-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는 1차 회의 이후 1개월만인 2월 8일에 개최됨. 당대회에서 제시한 5개년 계획 수행에 대한 비판적 회의(“심각히 자책”)
-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4개 분야 분과회의(공업, 농업, 경공업, 건설분과)협의회가 개최되었다고 처음으로 공개.

○ 제8기 제3차 전원회의가 4일간(6.15~18) 진행된 것도 매우 이례적임

- 이 회의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이 9개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하였음
- △금속,철도운수분과, △화학공업분과, △전기,석탄,기계공업분과, △건설건설분과, △경공업분과, △농업분과, △비상방역분과,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투쟁분과, △당사업분과로 나뉘어 연구 및 협의회 진행

○ 전원회의의 ‘기본정신’, ‘기본사상’, ‘핵심사항’ 강조

- 과거 김일성 시대에는 당 전원회의 이후 군중대회를 개최한다거나, 목표 관철을 위한 운동들은 있었으나, 김정은 시대 전원회의는 사후 로동신문 등을 통해 ‘기본정신’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¹⁾
- 2013년 3월 전원회의 직후 처음으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기본정신”이라는 기사가 게재됨
- 7차 당대회 이후 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은 ‘자력갱생’으로 집약할 수 있음
 - 제7기 2차 전원회의는 ‘자주의 기치, 자강력 제일주의’ (『로동신문』 2017년 10월 21일, 2면)
 - 제7기 3차 전원회의 기본정신은 ‘병진로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과 ‘자력갱생’ (『로동신문』 2018년 4월 29일, 2면)
 - 제7기 4차 전원회의 기본정신은 ‘자력갱생’ (『로동신문』 2019년 4월 18일, 2면)
 - 제7기 5차 전원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

1) 김정일 시대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비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김정은 시대의 첫 전원회의인 2013년 3월 전원회의는 김일성 시대의 마지막 전원회의인 1993년 12월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 이후 30년 만에 개최된 것이라 할 수 있음.

(『로동신문』 2020년 1월 4일, 3면 <론설>)

- 2~4차 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은 일반 기사로 게재하고 있는 것과 달리 5차 전원회의에서는 <론설>에서 다루고 있음

- 제8기 2차 전원회의 이후에도 1면에서 기본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 당대회 결정사항인 [5개년계획]을 결정한 “당대회의 권위를 견결히 보위하자는 것”

둘째 인민대중제일주의, 즉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결과를 기어이 이루어내는 것” 이라 규정하고 있음 (『로동신문』 2021년 2월 19일, 1면) . 또한 사설을 통해서도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자” 고 강조하고 있음

(『로동신문』 2021년 2월 14일, 1면 <사설>)

- 그러나, 제8기 3차 전원회의 이후에는 기본정신 대신 핵심사항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음 (『로동신문』 2021년 6월 20일, 2면)

핵심사항으로는 “인민생활향상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이 맥박치고 있다” 고 강조.²⁾

- 요컨대, 기본정신으로 7기에서는 자력갱생이 강조되었고, 8기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생활향상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음

3.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의 내용적 특징: 정치·군사부문

1) ‘의정’ (의제)

-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의 의정(의제)는, 국가사업 계획 이외에는 농촌문제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의정은 ‘대내외형세 하의 투쟁 방향’ 이 중심

○ 전원회의 의정

1. 2021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행정형총화와 2022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2. 2021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2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3.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4. 당규약의 일부 조항을 수정할데 대하여
5.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021년 하반기도 당조직사상생활정형에 대하여
6. 조직문제

2) 다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의 관련 기사 중 ‘우리 당과 국가의 최종대정책’이라는 기사에서는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이 최종대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로동신문』 2021년 6월 23일.

○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상정된 의정은 다음과 같음

1. 조성된 대내외형세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방향에 대하여
2. 조직문제에 대하여
3. 당중앙위원회 구호집을 수정보충할데 대하여
4.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성대히 기념할데 대하여

2) 정치 군사분야 내용

○ 2021년 평가

- 당의 조직규율 강화, 당결정집행을 비롯한 당풍 확립에서 전환이 있어났다고 평가
- 국방공업부문에서 “.....계획에 따라 첨단무기체계들을 련속 개발해내면서” 군사력의 ‘선진성과 현대성’을 크게 과시한 것은 큰 성과
- 수많은 청년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진출” 한 것은 ‘괄목할만한 정치적 성과’

○ 2022년도 당과 국가사업의 중심방향

- 세 가지 과업 언급
 -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
 -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사회질서와 인민의 안녕을 철저히 담보
 -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고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더욱 강화
- 국방부문의 전투적 과업

(인민군대) 전군을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당중앙의 령도에 절대 충성, 절대 복종하는 혁명적 당군으로 강화” “훈련제일주의와 군기확립에 총력”
(군수공업부문) 전투기술기재 개발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며, 국가방위력의 질적 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목표 계획적 달성
(민방위무력) “로농적위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적 자질과 지휘능력, 민간무력의 실전능력을 높여야”
- 당사업 부문
 - “당중앙과 사상과 뜻, 행동을 같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 형식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일대 사상전 전개
 - 당조직에서는 당경제정책에 집중

○ 기타

- 넷째 의정, 당활동의 정규화 규범화를 위한 당규약 수정안 가결
- 다섯째 의정, 2021년 하반기도 당조직사상생활정형 통보 및 총화사업 전개
- 여섯째 의정, 조직문제 논의

4. 논의 사항

1) 사상 문제

- 최근 10월 로동신문 사설³⁾에서 “전당을 학습하는 당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당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생기와 활력이 차넘치는 혁명적당으로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라고 강조
 - 즉 ‘김정은의 혁명사상’이 존재하고 이를 일색화하는 것이 필수적 요구라는 의미로 강조되고 있음
 - 11월 22일자 로동신문에 게재된 제5차 3대혁명 선구자대회 호소문에서도 “모두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혁명사상을 체질화하고 사색과 실천, 담력과 배짱도 김정은 동지를 닮은 참된 혁명전사가 되자.”고 강조
- 2021년 1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당규약 개정을 통해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위의 언급과 같이 ‘총비서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해야 한다는 문장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어, 당 규약의 내용과 충돌하고 있음
 - 그리고 이번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농촌에서의 3대혁명과 사상문제가 강조되었지만 변화된 용어의 제시나 설명,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 또한 새로운 사상에 대한 용어가 등장하려면, 주체사상과 같이 전일적인 이론적 내용과 체계를 제시하거나, 선군사상과 같이 주체사상과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선군의 뿌리는 주체사상이며, 다만 선군사상은 선군시대에 걸맞는 사상이라는 점 강조⁴⁾하며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을 뿌리로 두고 자라난 줄기로 설명하고 있음
 - 그리고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합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렇다면 ‘김정은 (총비서)동지의 혁명사상’은 어디에 위치해야 할지 과제가 아닐 수 없음

3) “전당을 학습하는 당으로 만들자.”『로동신문』 2021년 10월 28일.

4) <정론> “선군혁명 천만리.”『로동신문』 2002년 12월 15일.

2) 김여정의 승진 문제

-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 전까지는 당 제1부부장,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지금보다 직급이 높았다고 할 수 있음.
 - 1월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면직되었고, 제1부부장도 부부장으로 호칭이 변경됨
 -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 추모대회시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사이에 언급되어 승진 가능성이 예상되기도 하였음
-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총비서의 유일하다시피한 형제이기 때문에 직함과 상관없이 실제 권력은 막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8차 당대회에서 새로 신설되어 공식인 ‘제1비서’는 “총비서의 대리인”이며 향후 김여정 부부장이 제1비서로 승진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3) 군부와 경제관료의 등용 여부

- 1월에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에 임명된 박정근은 1년 만에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
 - 부총리가 정치국 위원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로서 ‘5개년계획’의 달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음
- 장정남 전 사회안전상은 소환되고 신임으로 리태섭 임명.
 - 사회안전상은 작년 한 해에만 3차례 교체되었는데, 경제난과 코로나 방역상황으로 인해 국내 통제가 쉽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
-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에 위원 21명, 후보위원 22명을 보선. 통일부는 중앙위 위원 승진에는 내각 인사가 다수 포함됐고 군 인사 후보위원 강등 등 분야별 공과도 인사에 반영됐다고 분석

4) 자극적-도발적 행위 (provocative actions) 가능성

- 금번 전원회의를 통해서는 북한이 유엔이 제재하고 있는 어떠한 도발적 행위를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 지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전략무기개발사업도 더 활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 등의 내용 강조
- 유엔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도발은 자제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지난 한 해 소위 ‘극초음속’ 무기개발과 단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개발 실험을 전개
-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전투기술기재’의 “경상적 동원준비”와 “개발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며”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전략 도발과는 거리가 있어 보임

5. 전망

- 북한은 신년사 발표를 하지 않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제8기 제4차회 보도로 대체한 것으로 평가됨
- 2년전 제7기 제5차 회의와 비교할 때, 농업정책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면 공개된 내용들의 구체성이 떨어져 정확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음
- 다만, 호전성과 공격성을 보이는 용어사용이나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의 개선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음
- 내부적으로는 3중고로 인해 혼란 여지가 있어, 사회통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안전상을 3차례 교체한 것도 이러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김정은 총비서의 권력이 점차 안정화단계에 접어들면서 사상의 해석권 또는 독자적 사상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체계적인 사상이론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선대의 주체사상, 선군사상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은의 혁명사상을 어떻게 배치할 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임

〈이상〉

북한 조선로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2년 전망: 경제 · 사회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1. 들어가며

- 북한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전원회의 결정서를 채택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올해 1월 1일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등 공식매체를 통해 공개
 - 이를 통해 2022년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
 - 이것으로 올해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를 대체(2019/20년과 동일한 상황)
-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통상적인 ‘해당년도 당 및 국가 정책 집행정형총화와 차년도 사업계획’을 의제로 선정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이하 ‘농촌문제 해결’로 줄임)를 별도의 의제로 선정해 논의
 -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보고’라는 형태로 새로운 정책에 대해 설명
 - 아울러 공식매체의 보도 분량도 올해의 경제일반 사업계획보다 ‘농촌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이 3배나 많음.
 - 이처럼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의 경제운영에서 농업 및 농촌문제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이 특징
- 이 글은 올 1월 1일 공식매체의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경제 사회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의 당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올해의 국정 운영 방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
 - 다만 전원회의 결정서의 전부가 공개되지 않고, 일부만 공개된 상태에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의 해석에 한계가 있음을 사전에 밝혀둠.

2. 2021년 사업 평가

(1) 북한 보도의 주요 내용

- 2021년에 대한 북한 스스로의 총평은 ‘위대한 승리의 해’로 압축 가능
 - 즉 “엄혹한 난관 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에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로 종합 평가

- 동시에 자력갱생의 성과를 강조
 - 즉 “극난한 환경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실행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
- 이런 성과를 가져온 최대 원인으로서는 주민들의 충성과 애국을 지적
 - “전체 인민이 당대회의 권위를 견결히 보위하려는 충성의 열의를 안고 산악같이 들고 일어나 모든 곤난을 인내하며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수행에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
- 올해 과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근거로서 여러 부문의 성과를 제시
 - 가장 성과가 많은 부문으로 내세운 것이 농업과 건설 부문
- 농업에 대해서는 “당이 제일 중시하는 농업부문에서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자신심을 가지게 하는 뚜렷한 진일보가 이룩되었다”고 밝힘.
 - 아울러 농업부문의 최대 성과로서 자연재해에 대처 가능한 농업기술상의 혁신을 달성했다는 점을 지적
 - 즉 “농사의 흉풍을 좌우하던 재해성기상현상과 장애요인들에 예견성 있게 대응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어떤 조건에서도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을 지적
- 건설의 경우, “계획하였던 방대한 대건설 과제들을 박력있게 추진”한 것을 큰 성과로 지적
 - 구체적으로는 송신, 송화지구의 1만 세대 건설,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 공사, 검덕지구 5,000세대 살림집 건설 등을 거론
- 아울러 여러 산업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힘.
 - 전력, 석탄공업부문, 건재공업부문과 기계, 채취, 립업, 룡해운, 철도운수부문을 거론
- 동시에 경제관리 부문에서도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
 - 즉 “경제부문에서 계획규률이 확립되고 경제지도 일군들의 사업기풍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밝힘.
 - 또한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 기관들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이 적극화되었다고 긍정적 평가

- 아울러 정치·사회·사상 분야에서도 성과를 제시
 - 즉 사회주의적인 생활, 사회주의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전인민적인 공통된 사상의식이 보다 강렬해져 집단주의의 위력이 실천에서 높이 발휘되었다고 밝힘.
 - 또한 수많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진출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미덕, 미풍의 소유자들로 자라난 것을 비롯하여 청년들의 기세가 매우 양양된 것은 괄목할 만한 정치적 성과라고 평가
 - 동시에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는 사업이 보다 심화되고 법질서가 강화되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을 담보하는 데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힘.
- 한편 올해 과업의 한계, 문제점 등 부정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극히 간단하게 언급하는 선에서 그쳤음.
 - 즉 “올해 사업에서의 부족점들과 중요한 교훈들, 그 해결방책들이 상세히 언급되었다”고 밝힌 것이 전부임.

(2) 해석과 평가

- 이번의 당 전원회의는 예년과 달리 여러 가지 성격이 혼재된 회의
 - 시기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한 해를 종합평가하고 내년의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
 - 그런데 지난해부터 새로 시작한 5개년 계획의 첫 해라는 점도 추가적인 고려사항
 - 특히 지난 12월 30일이 김정은의 공식 집권 10주년이라는 점이 중요
 ⇒ 이 점이 이번의 연말 당대회가 통상적인 연말 당대회와 상이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 따라서 지난해에 대해 ‘위대한 승리의 해’로 종합평가한 데는 다분히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
 - 지난해 경제실적 자체는 ‘위대한 승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
 -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집권 1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지난해 초의 8차 당대회 때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했을 측면 존재
 - 아울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다행히 식량 부문에서는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음.
- 만일 그러한 정치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북한은 지난해 경제실적에 대해 ‘현상유지’ 정도로 평가하고, 현재의 어려운 여건에 비추어 볼 때 ‘현상유지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정도면 선방한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 북한이 경제분야의 성과로 내세운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개의 숨은 그림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지난해의 전반적인 경제실적에 대해 부분적으로 추측 가능
- 우선 농업부문의 성과는 인정해야 함.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이 총 469만 톤으로서 전년대비 7%(29만 톤) 증가했다고 발표했음⁵⁾.
 -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식량증산의 최대 원인으로서는 지난해는 전반적으로 기상여건이 양호했고, 전년(2020년)과 달리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꼽고 있음.
 - 이와 관련, 북한이 농업부문의 최대 성과로서 주장한, 자연재해에 대처 가능한 농업 기술상의 혁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실태 및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 건설부문에서 성과를 내세우며 구체적인 지역과 사업명을 적시한 것은 살림집, 즉 주택분야뿐임.
 - 비주거용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일부 주택분야 건설만 활기를 띠었을 뿐, 비주거용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은 원자재 부족 등으로 공사의 실질적 진척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농후함.
- 아울러 여러 산업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해당산업을 거명했지만 금속, 화학, 경공업, 상업, 관광은 일체 언급하지 않아 이 산업들의 실적 악화를 시사했음.
 - 특히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 해야 한다며 이 두 개 산업에 경제운영의 최대 우선순위를 부여했지만 결국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시사함.
 - 동시에 “경공업부문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 것”을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의 하나로 설정했지만 경공업분야도 원자재 부족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음을 시사함.
 - 아울러 5개년계획에서 국영상업의 발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강조했지만 이들 부문도 위축되었음을 시사함.
- 또한 지난해가 새로 시작한 5개년계획의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5개년계획의 첫 해에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이 눈에 띈.
 - 2021년 1월에 5개년계획의 목표를 현실을 고려해 비교적 낮게 설정하고, 2월에 당 전원회의를 통해 2021년 한해의 목표를 일부는 상향조정, 일부는 하향조정했는데 이런 목표의 달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5) 농촌진흥청, “2021년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결과 발표,” 2021.1.2.16. 보도자료.

- 통상적인 경우라면 ‘위대한 승리의 해’ 라고 하면서 “5개년계획의 첫 해 목표를 달성했다” 고 밝힐 가능성이 높음.

□ 이와 관련, 2019년 말의 당 전원회의, 2021년 초의 8차 당대회때와 달리 이번의 당 전원회의에서는 비판적 평가와 질책 기조는 찾아볼 수 없고, 성과를 강조하는 기조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함.

□ 한편 정치사회분야, 특히 사상과 조직규율 등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

-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는 북한 지도부에게 주민통제, 사회통제의 명분을 제공
- 그동안의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주민의식 변화, 기존사회질서 변화, 기강 해이 등 체제불안요인의 확대에 대해 코로나를 계기로 강력한 제어에 나섰고, 이런 조치는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그렇다고 하면 북한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현재 코로나 국면에서의 국경봉쇄조치가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치사회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3. 2022년 사업 추진 방향 1: 경제사회 전반

(1) 북한 보도의 주요 내용

가. 경제분야

□ 올해의 기본과업은 5개년계획 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는 것으로 설정

- 특히 “현행생산을 활성화하면서 정비보강사업을 보다 힘있게 추진” 해서 “나라의 경제를 장성궤도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을 제공” 하는데 집중할 것을 주문

□ 이어 부문별로 주요 정책적 과업들을 제시

□ 가장 먼저 기간공업의 과업을 제시

-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 철도운수, 기계 등 6개 부문
-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우리 식의 철생산방법을 기술적으로 보다 더 세련시키고 원료

와 연료, 자재보장을 따라 세워 철강재를 계획대로 생산

-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새로 조성한 비료생산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요화학공장들을 활성화하여 경공업과 제약공업원료생산을 늘여야 함. 이와 함께 화학공업의 새 부문구조를 갖추기 위한 대상공사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함.
-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고 새로운 동력기지 건설을 다그치며 다양한 자연에너지에 의한 발전능력을 더 많이 조성해야 함.
-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탄발을 늘이며 선진적인 채탄방법과 기계수단들을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늘리는 한편 유연탄광들의 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에도 주목을 돌려야 함.
-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철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현대화를 다그치며 교통운수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세움.

□ 이어 식의주 문제 해결을 위한 과업을 제시

- 농업부문에서는 농촌을 노력적·물질적으로 지원하며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밀, 보리 재배면적이 늘어나는데 맞게 기계수단을 적극 도입
- 경제사업에서 기본건설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2022년에 계획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등을 추진
-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

□ 아울러 여타 분야의 과업도 제시

- 국토관리와 도시경영부문에서는 산림조성과 강하천정리, 사방야계공사를 꾸준히 진행하며 도로의 안전성과 문화성을 보장하고 생태환경을 보호, 개선해야 함.
- 또한 내각의 경제조직자적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계획화방법의 개선 사업을 심화시키며 경제활동을 정규화, 규범화할 것을 강조

□ 과학부문의 중점과제는 경제분야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 사업을 균형적, 동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으로 설정

- 특히 과학 연구단위들은 국가경제의 자립성을 높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기술개발과 완성을 기본과제로 선정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체의 과학기술역량을 배양, 육성하는 사업을 생산과 건설에 앞세워야 한다고 밝힘.

나. 사회분야

□ 교육, 보건, 문화예술 분야의 과제를 제시

- 교육부문에서는 수재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와 국방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 핵심, 견인기가 될 수 있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
- 보건사업의 기본방향은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담보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
- 문학예술부문에서는 문예활동에서 정치성과 시대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
- “날로 높이 발양되고 있는 우리 인민고유의 미덕, 미풍이 사회적기풍, 국풍으로 공고화” 될 것을 주문

□ 또한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 1 순위로 설정

- 이는 “사소한 해이나 빈틈, 허점도 없이 강력하게 전개해나가야 할 최종대사” 로 다시금 지적

□ 한편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강조

- 또한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사회질서와 인민의 안녕을 철저히 담보할 데 대한 과업,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고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한 과업들을 언급

(2) 해석과 평가

□ 올 한해의 경제분야 사업계획은 농업과 농촌문제 해결을 제외하고는, 예년보다 짜임새가 덜하고,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으며, 다소 평면적인, 특히 부문별 과제를, 그것도 간략하게 단순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 같은 인상

- 후술하겠지만 ‘농촌문제 해결’ 분야의 사업계획은 상당히 체계적인 것과는 대조적

□ 부문별 과제를 제시하기 이전에 일종의 총론 차원의 논의, 즉 목표, 방향, 원칙, 우선순위체계 등에 대한 논의도 종전보다 훨씬 적고 부족함.

- 총론 차원의 논의는 올해의 “기본과업은 5개년계획 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 하는 것이며, 특히 “현행생산을 활성화하면서 정비보강사업을 보다 힘있게 추진” 해서 “나라의 경제를 장성궤도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을 제공” 하는데 집중할 것이 전부임.

〈표 1〉 최근 3년간 신년사 대체물의 경제분야 주요 내용 비교

	2020년 (7기 5차 당 전원회의)	2021년 (8차 당대회)	2022년 (8기 4차 당 전원회의)
구호	-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 없음	-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비판과 질책	- 중요 과업 해결 위한 국가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 - 여러 부문에 산적되어 있는 폐단과 부진상태 - 땀때기식 투자, 하루살이식 투자	- 과학기술이 경제 전인 역할 수행 못했음 - 불합리한 경제사업체제와 질서의 정비보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음 - 그릇된 사상관점, 무책임한 사업태도, 무능력	- 없음.
기본 방향	- 양적성장보다는 질적개선 - 자력갱생	- 양적성장보다는 질적개선 - 정비전략, 보강전략 - 자력갱생, 자급자족	- 양적성장보다는 질적개선
당면과업 혹은 목표	-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	- 경제사업체제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연계를 복구정비, 자립적토대 다지기 위한 사업 추진, 경제를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케도에 올려세우는 것	- 현행생산을 활성화하면서 정비보강사업을 보다 힘있게 추진 - 나라의 경제를 장성케도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을 제공
중심과업	- 경제사업 체제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	- 금속·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투자 집중, 인민경제 모든 부문 생산 정상화. 농업부문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경공업부문 원료, 자재 원만보장, 인민소비품생산 증대	- 농업 및 농촌문제 해결
경제관리 개선 및 경제개혁	-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 -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 강화 - 국가상업체제, 사회주의 상업을 시급히 복원 - 경제관리 개선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제도를 정리 - 사업능률 저하시키는 요소를 바로잡음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현실성 있게 실시	- 경제운영에서 중앙의 역할 복원·강화 -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비롯한 경제운영의 정상화(특권경제의 축소 등)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언급 없음	- 내각의 경제조직자적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계획화방법의 개선 사업을 심화시키며 경제활동을 정규화, 규범화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언급 없음
기타	- 농업전선은 정면돌파전의 주타격전방 - 과학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 - 대외경제관계에 대해 언급 없음 -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 강화	- 농업의 중심목표는 기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는 것 - 과학기술발전은 사회주의건설의 중핵적인 과제, 최선의 방략 - 건설, 관광,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도모 -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간단한 언급 -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의 현상 적결	- 과학기술의 중점과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 - 대외경제관계에 대해 언급 없음 -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

- 이렇게 된 원인은 △올해는 농업과 농촌 문제 해결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는 방향성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방역사업이 국가운영의 최우선 분야라서 경제가 방역보다 우선순위가 밀려서 그러한지, 아니면 △이번 전원회의는 전반적으로 성과를 강조하는 등 긍정적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 때문인지는 불명확
- 물론 올해 경제운영의 큰 흐름은 2020, 2021년과 마찬가지로 양적성장보다는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읽혀짐.
 - 다만 경제운영의 방향성, 목표, 우선순위체계가 불명확
- 2019년 말에는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 하는 것이 경제운영의 핵심 과제. 특히 경제관리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제도 정리를 강하게 주문.
 - 2021년초 8차 당대회때는 ‘정비전략, 보강전략,’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는 큰 방향성 하에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연계를 복구정비, △자립적 토대 다지기 위한 사업 추진, △경제를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세우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또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비롯한 경제운영의 정상화(특권경제의 축소 등)와 경제운영에서 중앙의 역할 복원·강화 등을 강조
- 이와 관련,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북한지도부가 힘을 쏟아왔던 경제관리의 개선 문제, 사업체계와 질서의 합리적 정돈 등 북한판 규제개혁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점 또한 눈에 띈.
 - 아울러 오랫동안 소리높여 외쳐왔던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함.
 - 내각의 경제조직자적기능과 역할을 강화, 계획화방법의 개선 사업을 심화, 경제활동을 정규화, 규범화 정도만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음.
- 과학기술 분야도 예년과 달리 그 중요성과 역할, 의의를 강조하는 서술은 찾아볼 수 없고, 이 분야의 중점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침.
- 아울러 6개 산업을 기간공업으로 범주화해서 각 산업의 과제를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침.
 - 5개년계획에서는 △금속·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투자 집중, △농업부문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경공업부문 원료, 자재 원만 보장을 중심과업으로 제시
- 한편 5개년계획에서 최우선분야로 선정되었던 금속·화학공업에서 ‘주체철’ 표현

은 사라지고, ‘주체의 화학공업’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아 눈길을 끌었음.

- 금속공업에서 종전의 ‘주체철 생산체계’의 기술적 완성은 ‘우리 식의 철생산방법’을 기술적으로 세련화하는 것으로 표현을 수정
- 화학공업의 경우, 종전에는 북한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의 화학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기술개발 문제를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삭제되었음.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몇 년간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자력갱생’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음.

- 그런데 “극난한 환경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실행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등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자력갱생을 포함하고 있음.

4. 2022년 사업 추진 방향 2: 농업 및 농촌 분야

(1) 북한 보도의 주요 내용

□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보고를 함.

- 이 보고에서 그는 농촌진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과 중심과업, 구체적인 실행방도들을 제시하고, 중대조치들을 취했음.
- 이 보고에 대해 북한 매체들은 “현시기 우리 나라 농촌문제해결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진로를 명시한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이라고 평가

□ 그는 우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목표는 온 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화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힘.

- 우리식 농촌발전에서 점령하여야 할 목표로서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 제고,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인 개편을 지적
- 농업근로자들을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 만드는 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주된 과업이고 그 승리를 위한 관건적 요인이라고 밝힘.
- 10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알곡생산목표와 축산물, 과일, 남새, 공예작물, 잠업생산목표를 제시
- 또한 이 계획의 성과적 실행을 위한 담보는 △국가의 힘있는 지원, △강력한 국가적지도체계의 가동, △지방건설의 주인인 시, 군들의 역할제고라고 지적

□ 아울러 사회주의농촌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서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을 제시

- 이 중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는 것을 농촌의 3대혁명 수행에서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

- 기술혁명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만드는 것에 역점
- 이와 함께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과학농사제일주의를 제시
- 과학기술을 농업발전의 주된 동력으로 하여 나라의 농업을 선진적인 농업으로 전환 시키고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성을 이룩하자는 것
 - 이를 위해 종자혁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적인 농사체계와 방법을 확립하며 농업기상예보의 신속성과 과학성, 정확성을 보장할 것을 주문
- 이와 관련, 국가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
- 주민의 식생활문화를 흰 쌀밥과 밀가루음식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들을 주문
 - 국가적인 벼와 밀소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필요한 재배면적을 확보하는 사업의 추진과 밀가공 능력의 제고를 주문
 - 또한 전국적으로 콩농사, 감자농사열풍을 다시 한 번 고조시킬 데 대해 강조
- 동시에 농업에 대한 지도·관리 개선의 중요성과 원칙적 요구를 강조
- 국가의 농업생산전반에 대한 통일적이며 계획적이며 과학기술적인 지도를 강화
 - 군(郡)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위주로 하는 ‘우리식 농업지도체계’를 강조
 - 이와 함께 농업지도 일군들과 농촌초급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을 높이고 농업부문의 고질적인 허풍을 없앨 데 대해 지적
- 농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 증대 방안도 제시
-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기관들과 연관단위들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몫을 계통적으로 늘이고 설비와 자재, 자금을 계획대로 무조건 보장하는 강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
 -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전기화 실현을 위한 국가적인 투자정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해결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
- 그는 이어 북한에서 제일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
- 5개년계획 기간에 당적으로, 국가적으로 황해남도에 힘을 집중할 것을 주문
- 한편 협동농장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협동농장들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고 상환하지 못한 자금을 모두 면제할 데 대한 특혜조치를 선포
- 이어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는 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최종대과업으로 제시

- 모든 시, 군들에 농촌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우선적으로 전진 공급하고, 주요자재들과 마감건재들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며, 지방들에도 건재생산기지들을 꾸릴 데 대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북한의 공식매체는 이번의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에 대해 “위대한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심화발전” 이라고 평가

(2) 해석 및 평가

- 우선 이번 농촌건설강령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이하 ‘테제’로 줄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필요
- 이는 고(故) 김일성 주석이 1964년 2월 25일, 당 중앙위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했음.
 -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길을 역사상 처음으로 밝혀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테제’는 네 개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박스 1 참조)⁶⁾.

<박스 1: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체계>

- | |
|---|
| <p>I.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촌문제 해결의 기본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2.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3.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연계 <p>II.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기본과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기술혁명 2. 농촌문화혁명 3. 농촌에서의 사상혁명 4. 농촌에 대한 지원 5.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 <p>III.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의 군(郡)의 역할과 임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내 지방공업의 역할 2.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군 3. 농촌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의 군 4. 농촌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p>IV.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당면한 몇 가지 대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현물세의 폐지 2. 국가부담에 의한 모든 농촌기본건설의 실시 3. 국가부담에 의한 농촌문화주택의 건설 |
|---|

6)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641-643.

- 북한의 공식문헌들이 밝히고 있는 ‘테제’의 의미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임.
 - 즉 1964년 이전까지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해 농업분야가 다소 희생되면서 농촌은 낙후성을 면치 못했는데 1964년 이후로는 국가가 농촌의 발전과 농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것임.
 - 특히 도시-농촌과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해 국가는 농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의 지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
- 한편 이후 ‘테제’에 대한 외부세계의 평가는 양면성이 있음.
 - △국가는 약속한 대로 1966년에 농업현물세를 폐지했고, △농촌기술혁명의 기본과업인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적극 추진해 일정기간 동안 농업생산량 증가에 일부 성과를 거두는 등 긍정적 측면
 - 반면 △주택건설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국가가 농장의 현물분배의 모든 과정을 장악함에 따라 농민들의 분배상황은 오히려 악화되는 등 부정적 측면
- 그런데 이번의 새로운 농촌건설강령은 북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김일성 시대의 ‘테제’와 큰 틀에서 매우 유사함.
 - 우선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등 3대혁명의 추진
 - 그리고 협동농장과 농촌에 대한 국가의 투자 확대, 농촌에 대한 비료와 농약의 공급 확대, 선진적 농업과학기술 보급 확대, 기본건설 및 주택건설 관련 지원 확대 및 농촌에 대한 지도 강화
 - 아울러 지방건설의 실질적 주체인 시, 군의 역할 확대
-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번에 새로 제시된 정책방향이 아님.
 - 이미 지난 8차 당대회 때 “농촌건설의 전망목표는 농촌에서 3대혁명을 다그치고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차이,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며 당면과업은 농업근로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우고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며 농촌마을들을 지역적 특성이 살아나게 균형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따라서 기존에 제시했던 큰 틀을 골격으로 해서 살을 붙이고 구체화·체계화해서 새로운 강령으로 제시한 것
- 그런데 북한은 우리식 농촌발전에서 점령하여야 할 목표로서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 수준 제고,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인 개변을

제시했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목표는 두 번째인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 이와 관련, 10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알곡생산목표와 축산물, 과일, 남새, 공예작물, 잠업생산목표를 제시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곡(즉 식량) 생산목표

□ 따라서 이번의 새로운 강령은 식량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의지의 표출이라고도 해석 가능

- 혹은 단기적 대응, 임기응변적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자는 의지의 표출일 수도
- 이는 식량난의 만성화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해 여름까지 식량사정의 ‘긴장’ 가능성으로 큰 고생을 한 데 따른 성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재의 장기화’ 가능성에 확실하게 대비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음.

□ 그런데 목표는 비교적 명확한 반면 수단은 여전히 불명확한 측면

- 물론 앞에서 보았듯이 일종의 종합선물세트 식으로 다양한 수단을 제시했지만 수단 자체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 1월 1일자 보도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의 하나가 개혁적 성격이 있는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
- 이는 지난해 12월 30일자 노동신문에서 다수확 농장원 6만 8천 여명 등의 배출에 관해 보도할 때 다수확의 원인의 하나로서 거론한 바 있음.
- 따라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유지하면서 협동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기제로 활용할 가능성도 존재

□ 그렇다고 해도 새로운 강령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

- 북한 스스로도 이 계획의 성과적 실행을 위한 담보는 △국가의 힘있는 지원, △강력한 국가적지도체계의 가동, △지방건설의 주인인 시, 군들의 역할제고라고 지적

□ 무엇보다도 국가의 힘있는 지원이 얼마나 가능할지 미지수

- 북한지도부는 협동농장과 농촌에 대한 설비, 자재, 자금의 계획대로의 보장, 국가의 투자 확대, 비료와 농약의 공급 확대, 선진적 농업과학기술 보급 확대, 기본건설 및 주택건설 관련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런 약속이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
- 고강도 제재 실시 전인 김정은 집권 전반기(2012~16년), 즉 경제의 상대적 호전기에 도 농촌에 대한 이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현재와 같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시
-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황해남도를 중시해야 한다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

해서는 다소 배려를 할 가능성

- 한편 강력한 국가적지도체계의 가동은 기존 농장 운영에 중립적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국가의 힘있는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력한 국가적지도체계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농장 운영에 중립적 영향
 - 국가의 힘있는 지원이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강력한 국가적지도체계를 무리해서 가동시키려 한다면 기존의 농장 운영에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가능성

- 또한 지방건설의 주인인 시, 군들의 역할제고도 얼마나 가능할지 미지수
 - 이미 지방 차원의 자력갱생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경제난 이후 강화되었고, 현재의 제재국면에서 더욱 강화되었음.
 - 시, 군들이 식량증산, 농촌건설에 힘을 더 쏟을 여력이 있는지 의문

- 아울러 사회주의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 중 사상혁명을 우선적인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
 - 경제난이 발생하고 계획경제가 원활한 작동을 멈추고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면서 주민들의 의식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지 무려 30년이 지난 시점에 사상혁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

- 1964년의 ‘테제’를 2022년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최근 북한의 정책적 선택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잘 보여주고 있음.
 -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북한의 대응, 그리고 코로나 국면에서 북한이 펴는 경제정책에 다소 퇴행적 요소가 있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움.

북한 조선로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2년 전망: 대외 · 대남

박종철(대전대학교)

I. 3번의 ‘대체 신년사’ 와 대남 · 대외정책의 기초 유지

○ 2019년 이후 3차례의 ‘대체 신년사’

- 19년 말 7기 5차 전원회의, 21년 1월 8차 당대회, 21년 12월 8기 4차 전원회의 결과를 신년사로 대체

○ 3번의 ‘대체신년사’ 는 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새로운 길’ 의 기초 유지

- 북미대결의 장기화 및 제재의 장기화 예상
-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안정, 국방력 증대, 인민대중제일주의, 당역할 강화, 반/비사회주의 단속 강화 등에 역점
- 2020년 이후 코로나 19 방역에 최대 역점
- 대외 · 대남정책은 wait and see 기초 유지, moratorium(핵실험 및 ICBM발사 중단)을 유지하되 첨단무기 개발 지속

○ 대외 · 대남정책 비공개

- 구체적 내용 결여: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 1) 새로운 메시지 불필요: 21년 8차 당대회, 9월 10월 일련의 행사에서 김위원장 연설 등으로 기본방향 설정
- 2) 국내문제 우선: 경제문제 집중
- 3) 국제정세 유동성 고려: 남한의 3월 대선, 베이징 동계올림픽, 종전선언프로세스, 한미연합훈련 등

II. 대미정책 전망

○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의 상호 탐색과 줄다리기로 교착국면 지속

-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리뷰 결과, calibrated practical policy를 제시했으나 선제적으로 상응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 견지, 인권 침해를 근거로 대북제재(21.12.10) 부과

- 북한은 자력갱생과 핵능력강화로 버티며, 전략도발을 하지 않는 대신(2018년 이후 moratorium 유지) 첨단무기 개발(극초음속 미사일, SLMB 등)을 지속하며 wait and see

○ 김정은 정권 10년의 국가전략 변화

- 2012-2017: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 2017.12 핵무력 완성 선언
- 2018-2019.2 : 경제건설 집중전략, 대미관계 개선과 제재완화 기대
- 2019.2 --->: 하노이 노딜이후 8차 당대회 등을 통해 자력갱생, 국방력 강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노선 확정

○ 북한의 ‘강대 강, 선대 선’ 원칙 기초

- ‘강대강 선대선’ 원칙 하에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및 이중기준 철회 요구
- 한미연합훈련 중단, 제재완화 등의 선 실시 요구

○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지속-->수위 조절의 저강도 정책

- Moratorium(핵실험 · ICBM발사 중단) 유지
- 21년 순항미사일(1.22), 극초음속 미사일(9.28), SLBM(10.19) 등 대북제재를 유발하지 않는 저강도 정책
- 핵물질생산(HEU, 플루토늄) 등 핵능력 고도화

III. 대남정책 전망

○ 2019년 이후 북미대화 교착상태로 남북관계도 교착국면 지속

- 북한은 대남흔들기, 남한을 압박하여 미국에게 간접적 신호 발신 등을 염두에 두고 강온양면전략 구사(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남북연락통신선의 차단과 복원 반복)

○ 21년 1월 8차 당대회 기초 유지: 근본문제 해결과 조건부 관계개선론

- 근본문제 해결: 방역협력, 인도주의 협력, 개별관광 등 비본질적 문제 반대
- 적대행위 중지: 한미연합군사훈련, 첨단무기 도입, 국방력 증강(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개발 등) 비난
- 남북합의 이행: 상호주의(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만큼 상대)
- 조건부 관계 개선을 제시함으로써 남측의 행동 요구: 남측의 태도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남북관계가 3년 전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출발점으로 복귀 가능”

○ 문재인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21.9)에 대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와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

-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제재완화의 선결 요구
- 한국은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는 반면, 북한의 신형무기 실험을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이중기준의 철회 주장

○ 2021년 10월 4일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됨으로써 남북대화 채널이 작동하였으나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없는 상황

IV. 2022년 남북관계 전망

1. 고려요인

1) 코로나 19의 영향

- 경제문제 극복과 방역의 딜레마
- 국경폐쇄의 부정적 영향

2) 베이징올림픽

- 미, 영국, 호주 등의 ‘외교적 보이콧’과 코로나 19로 조용한 올림픽예상
- 베이징올림픽이 종전선언 무대로 활용될 가능성 감소
- 남북장관급 대화 및 남북접촉 가능성?

3) 한미연합군사훈련

- 3월 한미연합훈련: 코로나 19로 축소될 가능성
-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22년 여름, 가을, 전시작권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FOC(완전운용능력)검증문제

4) 종전선언 프로세스

- 한미간 종전선언의 문안에 대한 협의 마무리
- 한중협의를 중국의 건설적 역할 기대
- 북한과 협의: 종전선언의 문안, 시기, 조건, 방식 등에 대한 협의 필요

5) 한국 신정부의 성격에 따라 하반기 대화 재개는 유동적

- 민주당 후보 당선: 문재인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계승
- 국민의 힘 후보 당선: 대북통일정책의 기조 변화(다만 인도협력, 보건환경협력은 추진할 가능성)

6) 22년 11월 미 중간선거

-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바이든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력 상실

7) 북한의 고강도 군사적 행동 가능성은 낮음

- 2018년 이후 북한은 Moratorium 유지: 싱가포르 합의는 미국과 북한의 행동반경을 설정하는 일종의 ceiling이자, safety valve 역할: 바이든행정부도 싱가포르 합의의 존중 의사 표명, 북한은 모라토리움을 무효화할 경우 예상되는 제재 강화, 중국의 지원 확보 어려움 등을 우려
-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에 역점을 둔 중국의 입장 고려
- 경제문제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추가 제재를 유발할 군사적 행동 자제
- 다만, 국방력강화를 위해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은 존재
-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근거로 인공위성을 시험발사할 가능성: 유엔 제재 위반 여부로 논란 예상

2. 한반도정세안정 전망

○ 한반도정세관리 요인 작용

- 1) 종전선언 프로세스가 상황관리 기능
- 2)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중국이 한반도정세 안정 희망,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
- 3) 북한은 중국의 입장 고려, 경제문제 집중 등으로 한반도정세관리 지향

○ 베스트 시나리오는 종전선언을 계기로 북미대화 및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경우

- 남한의 적극적 역할, 중국의 건설적 역할,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맞물려 돌파구가 마련되는 시나리오
- 한미연합훈련 축소·연기--->종전선언 채택--->북미대화 및 남북대화재개의 시나리오

3. 교착국면 지속 전망

○ 바이든 행정부의 소극적 관여정책과 북한의 기다리기(wait and see)가 맞물려 종전선언 및 북미대화 재개의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의 지속

○ 북한은 기다리기전략, 핵능력고도화와 국방력 강화, 미중전략경쟁을 활용한 입지 확대 등 복합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이 먼저 전제조건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핵능력고도화와 국방능력 강화 지속: 신무기 개발의 종류, 발사 시점 등을 면밀하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
- 미중전략경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 상승. 미중전략경쟁을 활용하여 외교적 공간 확대 노력,
- 중국과의 밀착으로 경제적 위기를 완화하는 한편, 대미 협상력 제고 추구

<인도적 협력 및 보건·환경협력의 가능성>

○ 교착국면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협력, 보건·환경협력은 가능

○ 인도적 협력

- 대규모 식량지원: 코로나 19가 변수
- 북한은 국제기구와 협력 희망

○ 대북백신협력

- 백신, 의약품, 검역장비 등 제공
- COVAX와 협업, WHO와 협력

○ 남북산림협력 가능성

- 2018.10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 개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양묘장현대화사업,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에 합의
- 북한은 황폐화된 산림복원 필요, 남한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 확대를 위해 필요
- 북한에 산림 조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산림협력 방안
- 남한의 준비: [남북산림협력센터](과주 운영중, 철원 설립 예정), [DMZ항공관리소](김화읍에 산불헬기 3-4대 보유 격납고 신축), [한반도숲 가꾸기 캠페인](다양한 기관들의 MOU 체결)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북한 산림복구계획 포함

○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

- 북한(2016.9) ‘2021-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자발적 국가결정기여’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송배전망, 조림(산림복원) 등을 위한 외부 지원 요청

<부록>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평양 1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속에 위대한 투쟁의 해를 총화하고 새로운 발전지침을 책정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주체 110(2021)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전원회의는 전당,전국,전민이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전략사상과 실천강령을 받들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를 자랑스런 승리로 빛내이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향한 다음단계의 투쟁으로 신심드높이 이행하고있는 역사적인 시기에 소집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장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비상한 사상리론적예지로 사회주의 새 승리의 표대를 세워주시고 온 한해 정력적인 령도활동으로 국가부흥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해주신 우리 당과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국가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전원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과 성,중앙기관,도급지도적기관과 시,군,중요공장,기업소 책임일군들, 해당 중요부문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동지께 전원회의 사회를 위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소집의 기본목적과 그 의의,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역사적인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의 첫해인 2021년도 당 및 국가사업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적인 분석과 평가를 내리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대회가 제시한 발전과 변혁의 5개년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의 한해 한해의 사업은 사회주의건설의 발전적단계에 있어서나 우리 당과 국가의 현실적조건과 환경에 있어서 대단히 관건적이고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를 통하여 우리모두는 올해 사업 못지 않게 방대하고도 중대한 다음해 사업의 전략적중요성에 대해 자각하면서 무겁고도 책임적인 고민을 마주하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있고 또 앞으로 직면하게 될 혁명의 주객관적조건과 환경을 보다 선명하게 예측할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우리의 가능성과 자신심을 더욱 명확히 가지게 되었다고 하시였다.

지금의 대내외형세를 정확히 리해하고 정확히 판단하며 정확한 투쟁방침을 틀어쥐고 정확한 방향을 따라 정확한 걸음을 옮겨디더야만 실제적인 발전적변화로써 다음단계의 투쟁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한해 사업을 긍지스럽게 총화하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령정성을 가지고 교훈적인것을 먼저 분석해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찾게 되는 일련의 교훈들이 혁명적인 정책들을 더욱 보완하고 우리의 더 큰 발전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추동력으로 되게 하자는데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한 중요한 목적이 있으며 여기에 혁명발전의 커다란 실천적의의가 있다고 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는 값비싼 교훈과 헌신의 노력이 응축되어있고 비상한 책임감과 분발력으로 충만 되어있는 올해의 성과와 경험들을 적극 장려하고 증폭시켜야 하며 새년도 계획토의에서 무거운 책임성과 최대의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더 큰 성공과 승리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당겨와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2021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2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2. 2021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2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3.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4. 당규약의 일부 조항을 수정할데 대하여
5.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021년 하반기도 당조직사상생활정형에 대하여
6. 조직문제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전원일치로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토의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가 제기한 보고와 부문별토론들을 청취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먼저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당과 국가의 첫째 사업정형을 분석총화하시였다.

당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실천강령을 높이 들고 긴장하고도 보람있게 투쟁해온 2021년은 엄혹한 난관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으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라는것이 당중앙위원회가 내린 총평이다.

당중앙위원회가 올해 사업에서 내세운 총적인 목표와 지향은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무조건 수행하여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변화,실질적인 성과를 안아오는것이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올해 사업을 포치하고 추진하면서 계획작성에서부터 발전지향성과 견인성,과학성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그 집행에서 무조건성과 철저성,정확성의 기풍을 세우는데 특별한 힘을 넣었으며 일군들을 제때에 각성분발시키고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의 절실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대책을 적시에 수립하였다.

당이 제일 중시하는 농업부문에서 평가할수 있는 성과,자신심을 가지게 하는 뚜렷한 진일보가 이룩되였다.

중요한것은 농사의 흉풍을 좌우하던 재해성기상현상과 장애요인들에 예견성있게 대응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장악함으로써 어떤 조건에서도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며 이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비상한 애국적열성과 견인불발의 노력이 안아온 소중한 결실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농사를 잘 짓는데 적극 기여한 농업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근로자들,과학자,기술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내자는것을 전원회의앞에 정중히 제의하시였다.

전원회의는 김정은동지의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당중앙위원회가 올해 인민들앞에 내놓은 주목되는 성과는 계획하였던 방대한 대건설과제들을 박력있게 추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약동하는 발전상과 저력을 크게 과시한것이다.

송신,송화지구의 1만세대 건설이 기본적으로 결속되여 또 하나의 대건축군이 일떠선것은 5개년계획기간에 수도의 살림집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수 있는 전망,그 첫 실체를 보여준 경이적인 기적이다.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전국의 지방들을 개변시키는 장기적인 대건설을 확신성있게 밀고나갈 리상적인 본보기,산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검덕지구 5,000세대 살림집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고 함경남도과 함경북도의 큰물피해복구가 원만히 진행되었으며 현대적인 다락식주택구건설을 비롯한 많은 대상공사들에서 새로운 건축형식이 도입되고 새로운 착상들이 창조되여 우리의 건축이 한단계 도약하고 건설의 대변영기가 계속 개화발전하고있음을 립증하였다.

인민경제의 동력보장을 맡은 전력,석탄공업부문이 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경제전반을 활기차게 견인하고 건재공업부문과 기계,채취,림업,륙해운,철도운수부문에서 국가적건설과 생산적양양을 안받침한것을 비롯하여 올해 계획수행에서 진일보의 개선과 실적이 이루어졌다.

경제부문에서 계획규율이 확립되고 경제지도일군들의 사업기풍이 현저히 개선되었으며 이것은 앞으로 경제와 국가사업을 더 강력히 전진시킬수 있게 하는 힘있는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적인 생활,사회주의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전인민적인 공통된 사상의식이 보다 강렬해져 집단주의의 위력이 실천에서 높이 발휘되었다.

당중앙위원회는 올해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대담한 창조,부단한 전진을 이룩하려는 기운이 우세하게 발현되고 당의 조직규율강화,당결정집행을 비롯한 당풍확립에서 전환이 일어났다고 평가하였다.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이 적극화되었으며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는 사업이 보다 심화되고 법질서가 강화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을 담보하는데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룩되었다.

국방공업부문에서 자기의 정확한 발전계획에 따라 첨단무기체계들을 련속 개발해내면서 우리 군사력의 선진성과 현대성을 크게 과시한것은 올해 성과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대회가 열린 올해 수많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진출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미덕,미풍의 소유자들로 자라난것을 비롯하여 청년들의 기세가 매우 양양된것은 괄목할만한 정치성과이다.

당중앙위원회는 올해의 투쟁성과를 평가하면서 극난한 환경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킬수 있는 방법,자력으로 살아갈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실행하고있는것,이것이 경제발전에서의 긍정이며 이 과정이 곧 전면적국가발전을 향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힘있는 전진과정으로 된다고 평가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 사업에서 당당히 자부할만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것은 전체 인민이 당대회의 권위를 견결히 보위하려는 충성의 열의를 안고 산악같이 들고일어나 모든 곤난을 인내하며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수행에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주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견인 불발의 완강한 노력으로 당대회가 열린 2021년을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사에 특기할 자랑스러운 승리의 해로 빛내인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근로자들,인민군장병들을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하시고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결론에서는 올해 사업에서의 부족점들과 중요한 교훈들,그 해결방책들이 상세히 언급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2022년도 당과 국가사업의 중심방향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투쟁방침을 천명하시였다.

다음해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은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국가 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여 조국청사에 영광스러운 한페지를 아로새기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선인 경제부문에서는 현행생산을 활성화하면서 정비보강사업을 보다 힘있게 추진하여 나라의 경제를 장성궤도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을 제공하는데 총집중하여야 한다.

결론에서는 다음해 기간공업부문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정책적과업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우리 식의 철생산방법을 기술적으로 보다 더 세련시키고 원료와 연료,자재보장을 따라세워 철강재를 계획대로 생산하며 능력확장과 현대화를 동시에 내밀어야 한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새로 조성한 비료생산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요화학공장들을 활성화하여 경공업과 제약공업원료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화학공업의 새 부문구조를 갖추기 위한 대상공사를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당면한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벌리며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고 새로운 동력기지건설을 다그치며 다양한 자연에 네르기에 의한 발전능력을 더 많이 조성하여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탐사를 앞세우고 고속도굴진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 탄발을 늘이며 선진적인 채탄방법과 기계수단들을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장성시키는 한편 유연탄광들의 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에도 주목을 돌려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철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현대화를 다그치며 교통운수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세워 나라의 수송사업을 단계별로 발전시켜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의 정비보강계획수행에 필요한 대상설비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면서 료전기계와 전기기계,건설기계생산을 늘이고 질을 높여야 한다.

결론에서는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데 대한 과업이 중요하게 제시되였다.

전당적,전국가적으로 농사에 힘을 집중하고 농촌을 로력적으로,물질적으로 지원하며 농업부문에서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알곡생산을 높이는것과 함께 밀,보리재배면적이 늘어나는데 맞게 기계수단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경제사업에서 기본건설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새로운 건설혁명을 일으켜 2022년도에 계획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수도건설의 전성기를 계속 이어나가며 지방이 변하는 시대를 열어놓아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을 활성화하는것을 중요한 임무로 내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하

여야 하며 식료가공기술을 보다 높은 과학적토대위에 올려세워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교복과 학용품을 보장하는것은 당과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형태의 질 좋은 교복과 가방을 모든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공급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시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당중앙위원회적인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인민들의 식탁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부문에서 물고기생산을 늘이고 양어와 양식을 잘하는것과 함께 수산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결론에서는 채취공업과 림업,정보산업 등 다른 부문들에서도 자기 부문 사업을 실시 전진시켜 국가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과업들이 언급되였다.

국토관리와 도시경영부문에서는 철저히 인민들의 생명재산과 국토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산림조성과 강하천정리,사방야계공사를 년중 꾸준히 진행하며 도로의 안전성과 문화성을 보장하고 생태환경을 보호,개선하며 거리와 마을들에 원림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결론에서는 인민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정비보강하는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데 대한 과업들이 상세히 언급되였다.

또한 내각의 경제조직자적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계획화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을 심화시키며 경제활동을 정규화,규범화의 궤도에 올려세울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였다.

결론에서는 과학과 교육,보건을 비롯한 문화분야의 사업을 혁신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추동할데 대한 중요과업들이 제시되였다.

현시기 과학부문의 중점과제는 경제분야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사업을 균형적으로,동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명확히 수립하는것이다.

과학연구단위들에서는 국가경제의 자립성을 높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기술개발과 완성을 기본과제로 선정하며 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배양,육성하는 사업을 생산과 건설에 앞세워야 한다.

교육부문에서는 우리의 교육을 미래를 마음놓고 떠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켜 모든 학생들을 참다운 혁명인재,유능한 창조형의 인재,사회주의후비대로 키우는 것을 새 세기 교육혁명의 기본목적으로 내세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재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와 국방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핵심,견인기가 될수 있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며 지방과 농촌의 교원대렬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내밀어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려야 한다.

다음해 보건사업의 기본방향을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의 질을 더욱 높일수 있는 확실한 담보를 구축하는것으로 정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일층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창작가,예술인들의 사상관점과 창작태도,창조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문예활동에서 정치성과 시대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새세대 문예인후비육성에 품을 들여 그들이 창작창조활동에서 주류를 이루게 하여야 한다.

결론에서는 출판보도부문과 체육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선진수준에 올라서기 위한 대담한 개척과 활력있는 도약을 지향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고상하고 문명한 생활양식과 도덕기풍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근본이고 그 진보와 발전의 힘있는 활력소라고 하시면서 날로 높이 발양되고있는 우리 인

민고유의 미덕,미풍이 사회적기풍,국풍으로 공고화되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결론은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사소한 해이나 빈틈,허점도 없이 강력하게 전개해나가야 할 최종대사로 다시금 지적하였다.

나라의 방역기반을 과학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방역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는것을 비롯하여 우리의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으로 이행시키는데 필요한 수단과 역량을 보강,완비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어야 한다.

결론에서는 전당적,전국가적,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데 대하여서와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사회질서와 인민의 안녕을 철저히 담보할데 대한 과업,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고 사회주의법률제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과업들이 언급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방부문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날로 불안정해지고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방위력강화를 잠시도 늦춤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인민군대에서는 전군을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당중앙의 령도에 절대충성,절대복종하는 혁명적당군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며 훈련제일주의와 무기,전투기술기재들의 경상적동원준비,강철같은 군기확립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군수공업부문에서는 당 제8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이룩된 성과들을 계속 확대하면서 현대전에 상응한 위력한 전투기술기재개발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며 국가방위력의 질적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해나가야 한다.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민방위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며 훈련혁명을 일으켜 로농적위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적자질과 지휘능력,민간무력의 실전능력을 높여야 한다.

결론은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방향들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위한 중대한 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였다.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현시기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당사업을 부단히 개선하고 전당을 학습하는 당으로 만들어 당중앙과 사상과 뜻,행동을 같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되게 하며 당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것이다.

전당적으로 당사업에서의 형식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일대 사상전을 벌리고 당안에 혁명적규율을 철저히 확립하며 간부대렬을 순결하게,견실하게 다져야 한다.

당조직들에서는 당의 경제정책과 인민경제계획을 철저히 집행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며 당책임일군들은 자기 단위와 지방의 면모를 개변시킬수 있게 발전지향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하나하나 목적의식적으로 근기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2022년의 투쟁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위대한 우리 인민,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과감하게 전개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할 일대 결사전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그 어떤 만난시련도 뚫고나갈 굳은 신념과 억센 힘을 지닌 위대한 인민이 있고 올해와 같이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자력으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루어낸 귀중한 경험이 있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또다시 자랑스런 승리를 쟁취하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결론을 마치시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이 과감한 진군기세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다음해를 조국청사에 뜻깊게 아로새겨질 혁명

적대경사의 해로,휘황한 미래에로 나아가는 위대한 투쟁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으로 되게 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의 다음단계으로 강력히 인도하는 향도적투쟁방침으로,전진과 혁신의 실천적무기로 되는 김정은동지의 강령적인 결론에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로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당대회가 열린 2021년을 조국번영사에 특기할 자랑스러운 승리의 해로 금지높이 총화하고 국가부흥의 새로운 지침을 명시한 김정은동지의 결론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당겨오기 위한 2022년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귀중한 실천강령이며 필승의 전투적기치로 된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토의에서 국가예산심의조가 검토하여 제기한 2021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2년도 국가예산안을 최종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 제출할것을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창당 첫시기부터 농촌문제를 중시하여온 우리 당의 정책과 그 실현을 위한 력사적행정에 대하여 개괄하시고 현시기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밝히시였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이 성숙된 요구로 나선 오늘 농촌을 혁명적으로 개변시키는것은 엄혹한 난국을 주체적힘의 강화국면으로 반전시키고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이룩해나가는데서 중차대한 혁명과업으로 제기되고있다.

이로부터 당 제8차대회는 농업근로자들을 정책적으로 무장시키고 농촌을 현대적기술과 현대문명을 겸비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면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는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목표와 당면한 중심과업에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는 온 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화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제고,농업생산력의 비약적발전,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인 개변이 우리식 농촌발전에서 점령하여야 할 목표이라고 하시였다.

보고는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거창하고도 심각한 혁명이며 장기성과 다면성을 띠는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자면 과학적인 단계와 목표를 설정하고 년차별계획에 따라 목적지향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데 대하여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 당과 국가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장기적인 농촌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당면한 농촌발전전략의 중심과업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로동당시대에 어울리는 혁명적인 농업근로자로 개조하고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며 농촌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농촌을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는것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들을 농촌혁명의 담당자,주인으로 만드는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주되는 과업이고 그 승리를 위한 관건적요인이라고 하시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정치의식을 높여주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그들모두를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 구상을 충직하게 받드는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것을 농촌발전전략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시고 앞으로 10년동안에 단계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알곡생산목표와 축산물,과일,남새,공예작물,잡업생산목표를 밝히시였다.

보고는 농촌발전전략에서 특별히 중시해야 할 과업으로서 전국의 농촌마을들을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제기하였다.

나라의 모든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의 맛이 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건설하는것은 농촌주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훌륭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주며 국가의 전반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당에서 제일 중시하며 반드시 실현하자고 하는 전략적인 중대계획이다.

이 계획의 성과적실행을 위한 담보는 국가의 힘있는 지원과 강력한 국가적지도체계의 가동,지방건설의 주인인 시,군들의 역할제고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는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농촌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의 모든 농촌을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사회주의락원으로 훌륭히 전변시키며 인민들의 세기적숙망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

농촌에서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농촌에서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농업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면에서나 기술지식과 문화생활면에서 근본적으로 개명시킬수 있다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력사와 현 실태가 잘 보여주고있다.

보고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을 농촌의 3대혁명수행에서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의 목적은 농업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혁명화,주체사상화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우리 혁명력량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져 사회주의건설을 강력히 추진하자는데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농업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사상과 정책,혁명의 년대들에 배출된 농민영웅, 애국농민들의 투쟁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 당과 국가,제도의 위대성과 고마움을 체득시키며 집단주의가 사상의식과 생활을 지배하게 하는것과 함께 로동에 성실하고 높은 계급의식을 지니도록 교양하는데 주목을 돌리는것이다.

보고는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업근로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만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이 정치사상적으로,문화적으로 준비될뿐 아니라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할 때 사회주의농촌의 주인으로서의 구실을 다할수 있으며 새시대의 농촌진흥을 가속화할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의 견문을 넓혀주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농업과학기술학습과 선진영농기술보급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농촌에 대학졸업생들을 많이 배치하고 그들의 핵심적역할에 의거하여 농장의 기술력을 더욱 증대시키며 농촌에서 과학기술을 멀리하고 낡은 경험에 매달리는 현상들을 철저히 극복할데 대하여 보고는 지적하였다.

보고는 농촌문화혁명수행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농업근로자들의 문화의식

수준을 높이고 농촌에 혁명적이고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이 고향과 마을을 알뜰하게 꾸려나가면서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활동도 활발히 벌리며 고상하고 건전한 도덕기풍을 확립하여 우리 농촌에 웃음과 랑만, 화목한 정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국가적으로 농촌의 교육과 의료봉사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 수도의 문화, 로동계급의 문화, 시대의 본보기문화를 지방과 농촌에 끊임없이 전파, 확대하여 농촌문화혁명을 추동하여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나라의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장성시키는것을 농촌문제 해결에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보고는 인민들이 제일 해결을 기다리는 이 절실한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과학농사 제일주의를 일관하게 들고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과학기술을 농업발전의 주되는 동력으로 하여 나라의 농업을 선진적인 농업으로 전환시키고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성을 이룩하자는데가 우리 당의 전략적인 발전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종자혁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할수 있는 과학적인 농사체계와 방법을 확립하며 농업기상예보의 신속성과 과학성,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시기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는데서 당이 중시하는것은 나라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 농사를 강하게 추진하는것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숙망을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실현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를 다시금 표명하시고 우리 인민의 식생활문화를 흰쌀밥과 밀가루음식위주로 바꾸는대로 나라의 농업생산을 지향시키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밝히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국가적인 벼와 밀소요량을 충족시킬수 있게 필요한 재배면적을 확보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고 선진적인 재배방법을 도입하며 영농작업에 기계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건조시설을 꾸리는것과 함께 밀가공능력을 대폭 늘여야 한다.

당면하여 농장들에서 밀농사경험을 쌓기 위한 사업을 세밀하게 작전하고 국가적으로 다수확종자와 필요한 영농물자들을 보장하는 체계를 실속있게 세워야 한다.

보고는 전국적으로 콩농사, 감자농사열풍을 다시한번 고조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리고 저수확지들을 개량하여 옥토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힘있게 전개하며 별방지대나 중, 산간지대 할것없이 전반적인 농장들에서 정보당수확고를 높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보고는 축산과 과수, 남새와 공예작물생산을 늘이는것을 인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언급하였다.

현존축산기지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축산발전에 유리한 군들을 축산군으로 전환시켜 고기와 알, 젖생산량을 대폭 장성시키며 우량한 과일품종들을 널리 퍼치고 선진적인 재배기술을 확립하여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과 여러가지 과일가공품들이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

남새밭관수체계를 환원복구하고 현대적인 대규모남새온실농장들을 도처에 건설하며 버섯생산기지들을 활성화하여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며 공예작물재배에도 힘을 넣어 당원료와 기름원료를 비롯한 경공업원료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보고에서는 농업부문의 과학기술력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이 중요하게 언급되였다.

세계농업발전추세에 맞게 농업생산의 과학화, 정보화, 집약화를 실현하는데서 농업과학연구기관들과 농업부문 대학들이 역할을 다할데 대한 문제, 생산성을 제고할뿐 아니라 농장원들의 힘든 로

동을 덜어주고 기계화를 실현하는데 유리한 영농기술과 방법을 연구할데 대한 문제, 모든 농업과 학연구기지들을 첨단화하고 쟁쟁한 농업기술인재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할데 대한 문제, 농장, 작업반, 농장원들에 이르기까지 선진적인 농업과학기술과 영농방법이 제때에 보급되도록 할데 대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보고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농업생산의 지속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원칙적요구를 강조하고 나라의 농업생산전반에 대한 통일적이며 계획적이며 과학기술적인 지도를 강화하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위주로 하는 우리식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현실적인 방도들을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지도일군들과 농촌초급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을 높이고 농업부문의 고질적인 허풍을 없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농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들과 대책들을 밝히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목적지향성있게 증대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기관들과 련관단위들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몫을 계통적으로 늘이고 설비와 자재, 자금을 계획대로 무조건 보장하는 강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보고에서는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전기화실현을 위한 국가적인 투자정형이 상세히 분석되고 근본적인 해결방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였다.

그 어떤 가물과 큰물에도 끄떡없이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게 나라의 관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보강하고 더욱 완성하며 농촌에 질소비료와 린비료, 카리비료를 비롯한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여러가지 비료들과 효능높은 농약들을 충분히 공급하며 현대적인 전력설비와 전기기계들을 더 많이 보내주어 농촌의 생산활동과 문화생활조건을 개선향상시키며 새땅찾기와 간척지개간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부침땅면적을 계속 늘여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온 나라 농촌을 우리가 만든 현대적인 농기계들로 뒤덮고 농업근로자들이 기계로 농사를 흥겹게 짓는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을 펼쳐놓자는것이 당의 구상이고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앞당기기 위해 현존농기계공장들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의 구상은 금성프락또르공장을 마력수가 높은 프락또르와 함께 여러가지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생산할수 있는 종합적인 공장으로 발전시키면서 주요농기계공장들과 농기계연구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나라의 농기계공업을 완전히 일신시키는것이라고 언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특별중대조치를 취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를 중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5개년계획기간에 당적으로, 국가적으로 황해남도에 힘을 집중하여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기치를 들고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 모내기과 김매기, 가을걷이를 비롯한 주요영농시기에 력량과 수단을 기동성있게 동원하는것을 정례화, 의무화하며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을 방조하고 생산열의도 북돋아줄수 있게 경공업부문과 상업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들에서 여러가지 생활용품들을 정상적으로 많이 보내줄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어려운 형편에서 경영활동을 하고있는 협동농장들의 전반적인 재정실태를 세세히 분석하시고 우리 농촌이 제발로 일떠서게 하고 농장들의 경제적토대를 보강해주기 위한

중요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협동농장들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고 상환하지 못한 자금을 모두 면제할데 대한 특혜조치를 선포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선시키는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최종대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만들자는것이 우리 당의 농촌건설정책이다.

이 구상과 정책을 실현하는것은 전체 인민이 바라고 환호하는 인민적인 사업이고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회주의농촌문명,지방이 변하는 새세상을 펼쳐놓는 정치적사업이며 사회의 진보와 부흥을 위한 사업이고 우리 공화국의 전반적발전을 이룩하는 역사적인 사업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삼지연시건설에서 축적한 우수한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확대하여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의 생활문화환경을 변모시키며 그 과정을 통하여 문명한 전사회건설을 다그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시,군들에 농촌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우선적으로 전진공급할데 대하여서와 설계력량과 건설력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건설장비를 갖추데 대한 과업,농촌건설에서 살림집건설을 선차적으로 내밀데 대한 과업,농촌건설을 당적,국가적으로 지휘하는 강력한 지도체계를 세울데 대한 과업,주요자재들과 마감건재들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며 지방들에도 건재생산기지들을 꾸릴데 대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방건설에 관한 당의 건축미학사상을 철저히 견지하여 농촌건설에서 독창성과 현대성,문화성,정치성을 보장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나라의 경제사업이 아직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고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투쟁과업들이 나서고있는 때에 전국의 농촌들을 비약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취해진 중대조치들은 당과 국가의 혁명적인 농촌건설정책의 발현인 동시에 수백만 농업근로자들에게 돌려지는 커다란 혜택으로,배려로 된다.

역사적인 보고에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농촌리당조직들과 도,시,군당위원회들이 당의 농촌건설정책,지방건설정책에 철저히 준하여 농촌발전,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작전과 설계를 바로하며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 집행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특히 리당위원회들이 당의 기본전투부대,기백있고 전투력있는 집단이 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정책을 당적으로 옳게 지도하고 견인하며 리당비서들의 수준과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보고는 전당적으로 사회주의농촌건설정책의 집행정형을 정기적으로 총화대책하는 체계를 세워 농촌건설강령이 해마다 위대한 변혁적실체로 전환되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의 정확한 령도가 있고 가장 옳바른 농촌건설강령이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실성과 애국적열정이 있는한 나라의 농업을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농촌의 천지개벽을 안아오기 위한 역사적인 사업에서 필연코 승리가 이룩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새 세기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휘황한 전망과 설계도를 펼친 김정은동지의 보고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새시대를 알리는 위대한 투쟁강령이며 우리의 힘,우리의 지혜,우리의 분투로써 사회주의락원을 보란듯이 건설하려는 조선로동당의 강렬한 의지와 결심의 표출이다.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은 위대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심화발전으로서 농촌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다그치고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하루빨리 실

현하는데서 중대한 변혁적의의를 가지는 기념비적문헌으로 된다.

전원회의는 김정일동지의 강령적인 결론과 역사적인 보고의 사상과 정신에 립각하여 다음해의 투쟁과업과 새로운 농촌건설강령의 실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3일간 진행하였다.

전원회의는 결정서초안작성소조에서 종합한 의견들을 최종심의하고 결정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2022년도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와 《우리식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투쟁강령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에 대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충분한 사전연구를 통하여 당규약수정안이 당건설과 당활동을 정규화,규범화하는데서 실천적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하면서 당규약의 해당 조항을 수정할데 대한 결정을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섯째 의정을 토의하였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021년 하반기도 당조직사상생활정형에 대한 자료가 통보되고 총화사업이 있었다.

전원회의는 여섯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고 당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5일간에 걸쳐 혁명적열의속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언제나 충직할것을 엄숙히 선서하면서 자기사업을 끝마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는 위대한 당의 불패의 향도따라 희망찬 새해 2022년을 혁명발전의 일대 분수령으로 빛내이기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의 개시를 선언하고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강력히 추동할 전략적방침을 제시한 역사적인 회의로 주체혁명사에 뜻깊게 아로새겨질것이다. (끝)